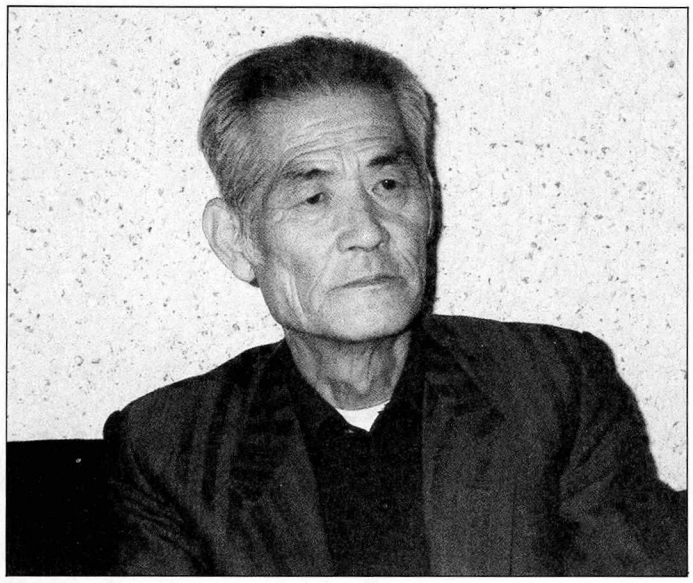


의미기능 따라 주제별로 분류한 속담사전
실생활에서의 활용에 중점 둬 높은 평가

—「한국속담활용사전」 펴낸 김도환교수

이 책 그 사람

옛사람들의 말 속에 일상어처럼 녹아 있던 숱한 속담들.

옛사람들은 "호박잎에 청개구리 뛰어오른다"며 버릇없는 며느리를 꾸짖기도 하고, 도회에 볼일이 있어 나가는 늙은이를 걱정이라도 할라치면 "서울 김서방 집도 찾아간다"며 당당하게 사립문을 나서곤 했다. 이처럼 평범한 말 위에 척허니 걸쳐놓던 간명한 문구 하나는 더이상의 구구한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말하는 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김도환(68) 부산대 명예교수가 최근에 펴낸 「한국속담활용사전」(한울아카데미)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속담들을 "가나다 순의 어휘사전처럼 모아놓아 찾아 쓰고 싶어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실정에서 때마침 나온 '실생활에서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사전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이 사전이 지금도 서점에만 나가면 즐비하게 꽂혀 있는 여느 속담사전들과 구분되는 점은 의미의 기능에 따라 주제를 분류, 필요한 데에 찾아쓸 수 있게 한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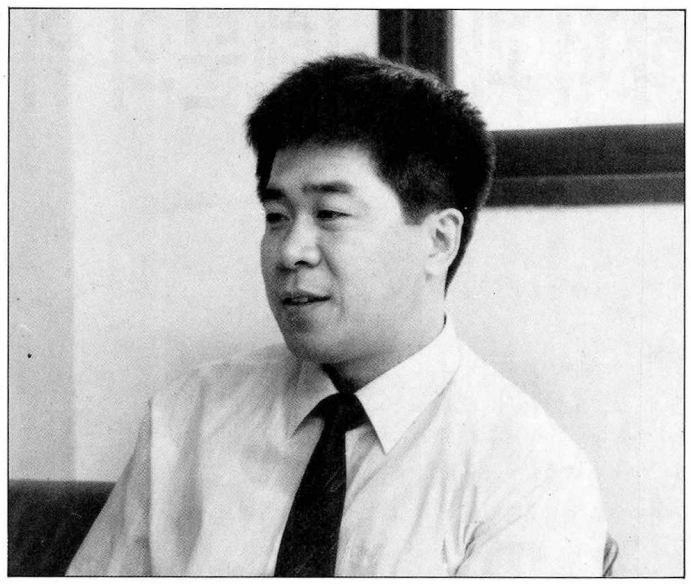
"기존의 속담사전에는 속담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 있다"는 그는 속담과 자칫 헷갈리기 좋은 격언·금언 등과 속담이 구분되는 기준을 "비유"의 있고 없음으로 꼽는다. 이러한 기준으로 기왕에 나와 있던 속담사전에서 진짜 속담이 될 만한 것을 뽑아내고, 지방으로 다니며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묻혀 있던 속담들을 찾아내 총 6,227개의 속담을 48개의 주제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작은 항목으로 나눴다.

큰 주제는 인생의 공리, 처세·처사의 원리, 경제행위의 원리, 인간의 심성 일반, 성품과 언행, 인간관계와 교제, 사기·시간·거래 등 48개로 나누고, 다시 큰 주제는 '처세의 원리'의 경우 의리와 지조, 자랑하지 말 것, 흉보지 말 것, 말조심, 호언·현명한 말 등으로 구분해 싣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말조심' 항목은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을 할수록 거칠어진다" "제게서 한 말이 제게로 돌아간다" 등 모두 50여개도 더 넘는데, 이 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의 속담을 가지고 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말의 진중한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삶의 지혜인지를 일깨운다.

김 교수의 이 책에 대한 자부심은 "세계에서 유일한 활용사전"이라든가, 웃으면서 하는 "나는 속담에 관한 한 1인자"라는 말 아래 옹골지게 깔려 있다. 그를 만난 날도 "오늘 고향에 갔다가 새로운 속담 두 개를 알아왔지" 하며 적어온 것을 내보인다. 그의 전공은 의외로 심리학인데, 그런 까닭에 속담을 모으고 일일이 정리하는 데만 30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다행히 2년 전 정년퇴임을 하고서는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가 비로소 30년 뜻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그는 전공에 관한 책도 적잖게 출판해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평생을 연구해온 전공서적보다 그저 애착을 갖고 짬짬히 해왔던 이 작업으로 최근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속담이 지닌 가치를 "인생의 지도" "삶의 스승"으로 표현하는 김옹은 속담들을 뒤적이며 "혼자서 실없이 웃기도" 하고 "히죽거릴 수 있는" 그 낙에 간혹 오류가 발견되는 이 책을 수정·보완하는 데 여생을 바칠 것이라고 한다.

——정혜옥 기자



탐욕과 이기심의 포악성 파헤친 장편소설
장르간 경계 허무는 작가적 이력 독특

—「겉옷과 속옷」 펴낸 원재길씨

이 책 그 사람

인간은 욕망덩어리이다. 가끔 정도를 넘어선 욕망을 탐욕이라 부른다.

탐욕의 포악성은 폭력을 조장하고 개인간의 마찰을 가져온다. 가히 즐겁지 않은 현상임에 틀림없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인간의 욕망구조 혹은 인간의 이중심리를 그린 소설「겉옷과 속옷」(문이당)은 사회성을 가진 인간의 이중 심리를 파헤치고 인간의 욕망이 비대해졌을 때 생겨나는 무자비한 이기심을 얘기한다.

작가 원재길씨(34)는 "부미동"이라는 소설의 배경이 단지 소설구조안에 있는 어떤 배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를 축소시킨 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부미동은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상징입니다. 등장인물들이 모두 가공의 인물이긴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찾아지는 평범한 인물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 투성이니까요."

부미동에서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망 때문에 점차 소멸해가는 인간성이 허옇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광포한 욕망이 빚어내는 사회문제들과 등장인물들이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만 할 뿐 어떤 해결점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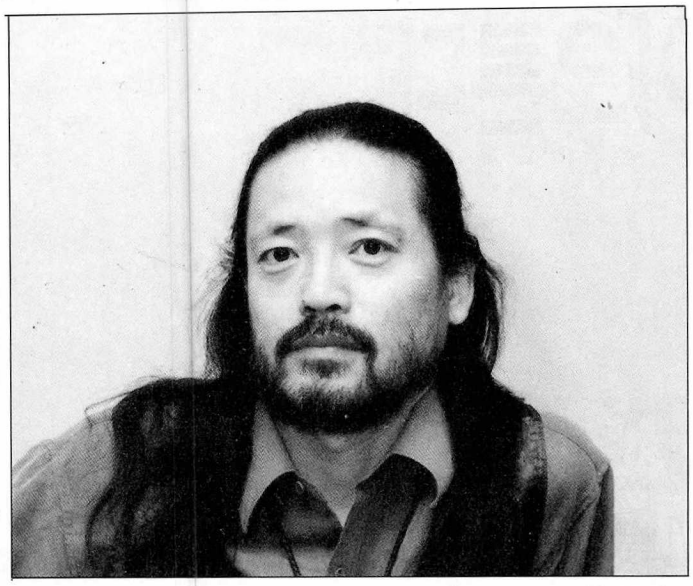
"결말은 없고 욕망의 한계를 드러내는 인물들만 제시됩니다. 사회성을 가진 익명의 모든 개인들이 갖는 욕망의 구조와 광포성을 조명하는 데 그쳤지만 서술하지 않은 그 결말에 대해선 독자들의 자유에 맡깁니다. 작가는 '보여주기'에 그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겉옷과 속옷」이라는 제목 또한 부미동과 마찬가지로 상징의 요소로 보아도 무방한데, 작가의 설명을 빌자면 "겉"은 사회성을 지닌 자아이고 "속"은 욕망의 덩어리이다. 그에게 있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다. 이 소설에도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데 현실에서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세상 어딘가에 그런 인물이 꼭 존재하리라는 확신에 차 있다. 인간심리의 이중성을 다룬 이 소설을 쓰는 동안 작가 자신이 많이 타락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인간의 이중성을 관찰하다보니 그릇된 욕망이 빚어내는 불결한 세계들을 알게 된 까닭이다. 그나마 타락에서 건진 소득이 하나 있다면, 이젠 인간의 행동을 한걸음 물러나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다.

"초기에 시로 데뷔했을뿐 그전부터 장르 구분없이 소설이나 평론도 썼습니다. 시는 상징성에 많이 기대고 소설은 리얼리티를 요구하죠. 최근 소설들은 리얼리티만 강조되어 시에서 느꼈던 꿈이나 몽상 또는 환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쓰는 동안 줄곧 타락했다고 느꼈나 봅니다."

그가「겉옷과 속옷」을 쓰는 동안 계절이 열 여섯 번이나 바뀌었고 그만큼 그도 겉옷과 속옷을 갈아입으면서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을 가공해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 중엔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많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서 눈길을 끈다. 작가가 낚시를 좋아하는지 혹은 낚시하는 정서를 즐기는지 알 수 없지만, 겉과 속이 둘다 반지르 윤기가 돌아 건강해 보이는 물고기 한마리가 그의 낚시를 덥석 물기를 기대해 본다.

——배은희 기자



부적의 현대적 의미와 조형적 가치 고찰
예술과 신화 접목된 민간신앙의 상징물

—「영사부적」 펴낸 정명철씨

이 책 그 사람

부적을 미신의 징표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늘의 기운과 사람을 이어주는 영적 매개체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점이 어떠하든간에 우리 민족은 생활의 일부로 부적을 곁에 두고 있었다.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신봉돼왔고, 신앙의 상징물이라고 하기에는 그 진지함이 이해되지 않은 것이 부적이다.

최근 정명철씨(45)가 그린 「영사부적」(문화산책)은 부적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란을 일소해내지는 못하지만 현대적인 의미로 부적을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영사부적」은 사랑·건강·성공·행운·운명 등 40가지 소망성취를 이루게 하는 영사부적 40장과, 부적의 역사·본질·가치성 등을 풀이하고 또 영사부적의 신통력을 체득케 하는 영사부적 명상법을 담은 해설서로 이뤄졌다. 그의 부적은 그 자체의 성격과는 다른 예술적 감각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적 하나하나가 추상화처럼 보여 화려하기까지하다. 즉 그의 부적은 상징물이라는 한 켠의 견해와는 경계를 달리해서 '미술작품'으로 이해될 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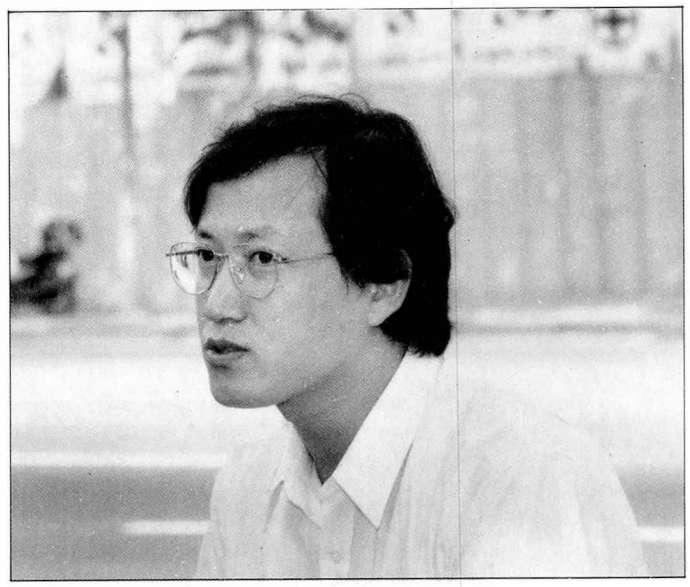
정명철씨가 부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부적의 회화성 때문. 계명대 미대에서 서양화를 전공으로 공부하던 그의 이력이 있고 보면 부적에 대한 궁금증이 한 편으로 치우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도 부적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예술과 신화의 접목된 형태라는 막연한 개념으로만 부적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그가 부적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넓힐 수 있게 된 것은 학적을 잃고 방랑생활을 하다가 김평수 노인을 만나면서부터다. 그 밑에서 몇년간의 수련생활을 거쳐 부주사가 되면서 부적의 심오한 음향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부적은 고도의 상징성이 있는 기호입니다. 단순히 주술적인 의미에서만 부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단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적은 사람들에게 행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주질서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정명철씨는 국기는 물론 단체나 종교에서 사용하는 특유의 상징적 문양도 모두 부적의 일종이라 한다. 예기치 못한 재앙을 사전에 막아주고 액운을 물리치는 위력이 부적에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복된 상징을 취한 것이리라. 하지만 그는 부적의 영험한 효능이 어디에서 연유하는가 하는 것은 막연하고 신비에 가려진 것이어서 꼬집어 단정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단지 분명한 것은 그 효능의 일부는 부적을 믿는 개인의 신념에서 연유한다는 것이다.

정명철씨는 선도를 대중화시키기에 출판계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 그가 해냄출판사에 있으면서 기획한 것이 「소설 토정비결」이다. 또 한편으로 그는 부적을 문화적인 각도에서 재해석, 현대적인 미술기법까지를 동원한 부적을 만들어 지난 1월 경인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이번에 출판된 부적도 그의 부적 대중화 노력에 일조를 할 듯하다.

——이성수 기자



정신과 醫窓에 비친 현대인의 정신건강
치료는 '감동'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해

—「나는 다만 하고 싶지…」 낸 김정일씨

이 책 그 사람

정신과를 찾는 이들은 대개 부정을 할 줄 모르는 '예스맨'과 '예스우먼'들이며, 따라서 바람직한 의미의 싸움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정일씨(36, 명륜신경정신과)가 최근, 수필집 「나는 다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뿐이다」(새길)를 펴냈다. 단순히 환자들의 사례를 모으지 않고 자신의 '가출' 경험까지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흥미를 더한다.

"미용실 만큼이나 정신과가 많다는 외국에 비해서도 그렇지만 늘어나는 치료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건강에 대한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정신건강쪽으로 옮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전에 정신과에 대한 기존의 그릇된 인식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지난 90년 상연된 연극 「프쉬케, 그대의 거울」의 극작 이후의 청탁원고를 모아 엮은 이 책에서 "정신과 의사들도 선배들로부터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서슴없이 밝힌다. 다시말해 정신치료는 급한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신과 치료는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김정일씨에게 있어 글쓰기는, 불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한 치료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기에 그는 글쓰기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학부시절 주임교수의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환자들과 같이 늙어간다"고 말한다.

정신분석 약물치료에 이어 제3의 치료라고 불리는 싸이코 드라마에 남다른 열정을 보이는 김정일씨는, 무대와 행동으로 극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굿과도 같은 즉흥극을 통해 홧병에 시달리는 4,50대 여성환자와 대인공포증·조울증으로 고통받는 20대의 환자들을 돌본다. 그렇게 만난, 만화를 좋아하고 소설가를 꿈꾸는 한 청년을 인상깊은 환자로 손꼽는 그는 "최근엔 과연 환자를 고쳐야 하는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를 치료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창조적인 아이들은 대학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런 청소년 1백명을 모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어느 대학교수의 행동에 이해가 간다고 전한다. 이 책에는 그런 임상경험만이 들어 있지 않다. 고부간의 갈등으로 2년전 감행했던 가출사건도, 비디오와 만화를 즐기며 딸아이와 쎄쎄쎄를 하는 자신의 현재 모습도 고백하고 있다.

"저도 체험하는 것이지만, 과잉보호로 자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환경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제대로 독립한 성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전 한 후배가 현대인들의 정신적 불안을 '분리 불안'이란 말로 표현한 것을 적절한 분석이라고 생각한다는 김정일씨는 내년쯤 영화화될 예정인 자신의 시나리오 「역전」을 소설로 개작해놓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글을 통한 치료와 싸이코 드라마로 마음의 병에 시달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아파할 작정이다.

——최태원 기자